

자료제공 : 2024. 2. 4.(일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

교통정책과장

이진구

2133-2210

사진없음

사진있음

쪽수: 4쪽

교통수요관리팀장

김종민

2133-222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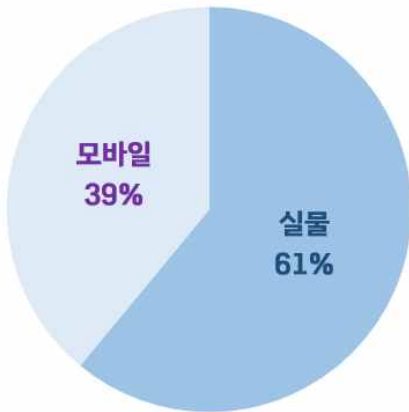
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56% 20~30대 청년층, 누적 31만장 판매

- 1.23.(화) 판매 개시 후 약 31만장 판매...모바일 12만장, 실물 19만장
- 2.2.(금) 약 21만명 기후동행카드로 대중교통 이용, 이용자 수 지속 증가 추세
- 이용자의 56%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~30대 청년층, 실수요자 주로 구매
- 지하철 2호선 최다 이용, 평일 강남, 구로디지털단지, 신림 순 이용량 많아
- 평일 버스 143번(정릉~개포동), 160번(도봉산~온수동), 130번(우이동~길동) 최다 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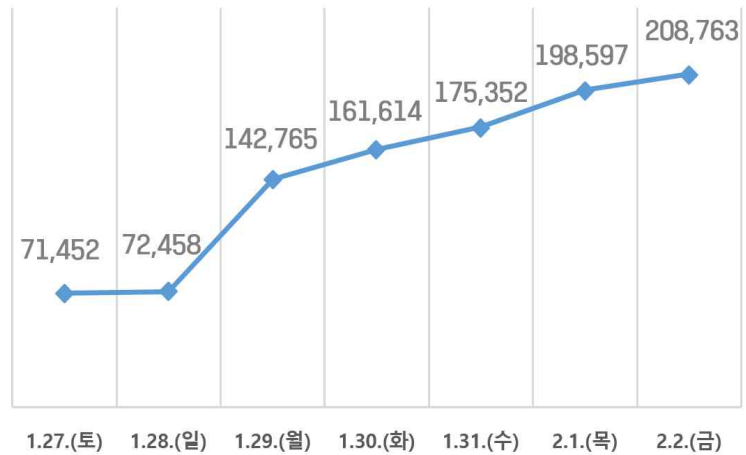
서울시는 시행된 지 일주일이 된 기후동행카드가 2.2.(금)까지 약 31만장이 팔리고 약 21만명이 기후동행카드로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했다고 밝혔다.

- 지난 1.23(화) 판매를 시작한 이래로 ▲모바일카드는 12만 4천장, ▲실물카드는 19만 1천장이 각각 판매된 것으로 집계되었다.
- 예상보다 큰 인기에 실물카드의 경우 준비된 물량이 거의 소진되어 15만장을 추가 생산하고 있으며, 오는 2.7(수)부터 순차적으로 추가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.

□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. 지난 주말, 약 7만명이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2.2(금)에는 약 21만명까지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.



< 카드 유형별 구매비율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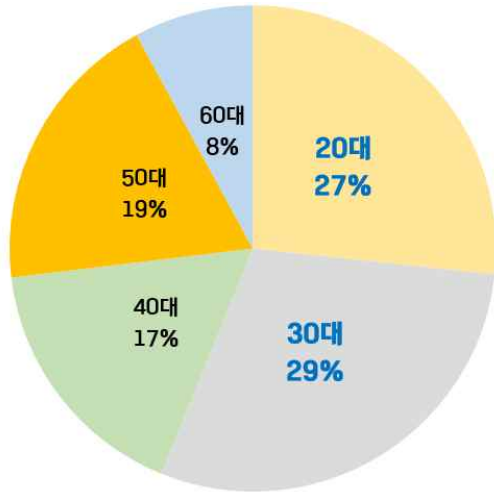
< 기후동행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 수(누적) >

□ 또한, 지난 일주일 비교적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기후동행카드로 따릉이를 이용하는 사람도 점차 증가하였다. 1.27(토)에는 338명이 따릉이를 이용한 것을 시작으로, 2.1(목)에는 1,066명이 따릉이를 이용하였고 누적 사용자는 4,284명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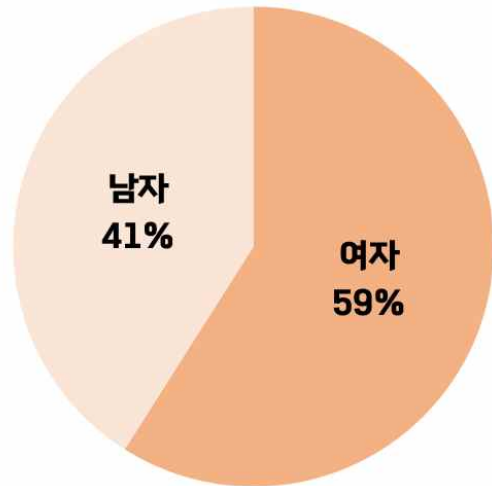
○ 아직은 겨울철인 탓에 버스, 지하철만 이용할 수 있는 6만 2천원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많으나 날씨가 풀리는 봄에는 따릉이까지 포함된 6만 5천원권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□ 구매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▲ 20대 27%, ▲ 30대 29%, ▲ 40대 17%, ▲ 50대 19% 순으로, 20~30대 청년층이 주로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여성의 구매 비율이 59%로 남성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- 20~30대의 구매 비율이 높은 것은 기후동행카드가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유의미하게 줄여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, 동시에 환경보호 의식이 높은 청년층이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


< 구매자 연령비율 >



< 구매자 성별 비율 >

- 향후 5만원대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이 도입되면 청년들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,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 이용 동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한편, 기후동행카드로 최다 이용한 지하철 노선은 2호선으로 ▲2호선, ▲5호선, ▲7호선, ▲4호선, ▲3호선 순으로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주말에는 ▲홍대입구역, ▲신림역, ▲잠실역, ▲구로디지털단지역, ▲강남역 순으로 평일에는 ▲강남역, ▲구로디지털단지역, ▲신림역, ▲잠실역, ▲선릉역 순으로 많이 이용하였다.

- 버스는 주말에는 ▲ 272(면목동~남가좌동), ▲ 130(우이동~길동), ▲ 143(정릉~개포동), ▲ 152(화계사~삼막사사거리), ▲ 271(용마문화복지센터~월드컵파크7단지) 노선이 인기가 있었고, 평일에는 ▲ 143(정릉~개포동), ▲ 160(도봉산~온수동), ▲ 130(우이동~길동), ▲ 152(화계사~삼막사사거리), ▲ 272(면목동~남가좌동) 순으로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.

-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“시행 초기인 만큼 기후동행카드 사용자의 다양한 의견과 피드백을 반영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라며 “시범사업 6개월 동안 구매자의 교통이용 패턴 분석연구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실수요자 맞춤으로 권종과 혜택을 강화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